

## 학생 배경에 따른 대학진학 기회의 차이: 성별, 가정배경, 지역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김성식(金聖植)\*

###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성별, 가정 배경, 그리고 지역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좋은 고등교육 기회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통제되더라도 유지되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도시 지역 학생들이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에서 더 많이 진학하고 있지만, 성적을 통제하면 오히려 읍면 지역 학생들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외 시간, 교과 흥미도, 학교의 만족도 수준도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교과 흥미도와 학교 만족도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 교육 기회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면서 학생 개인의 노력과 학교 교육의 개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 주요어 : 대학 진학, 교육 계층화, 형평성, 학업 성취

### I. 서론

이 논문은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성별, 가정 배경, 거주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 경험이 대학 진학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대학 교육은 이후 직업 획득과 소득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 획득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학생들의 능력과 무관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정도가 심하다면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의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상급 학교 진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은 그동안 교육 불평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 진학과 같은 교육 기회의 획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학생 개인의 능력 또는 성취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의존하는 전형 요소는 학생들의 성적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여러 형태와 유형이 있겠지만 학생 선발이 성과와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학생 선발이 학생 능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학 교육 기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성취 지향적 교육 기회 배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기회의 획득이 계층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류방란·김성식, 2006; 김기현, 2004; 방하남, 김기현, 2002). 더 나아가서 상위 계층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입학하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김광익 외, 2004). 이런 현실은 객관적인 지표로 생각되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조차도 사실은 가정 배경의 영향을 받은 산물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상위 계층 학생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성취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대학 진학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 기회가 성별, 사회 경제적 배경, 그리고 지역과 같은 배경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도는 한 사회의 교육적 형평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 된다.

대학 교육 기회 획득에 대한 학생 배경의 영향력은 중등교육이 보편화되고 고등교육이 팽창해 감에 따라서 감소한다. 연령별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 기회가 확대된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서 최종학력의 계층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Boudon, 1974).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은 82.8%에 이르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7: 32). 일반계 고등학생에 한정하여 보면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은 87.1%로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진학 자체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양적 확대로 인하여 계층 간 교육 기회가 점차적으로 균등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가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평등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대학 교육의 급속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학생 배경에 의한 대학 진학 격차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자료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직업지위

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김경근·변수용, 2006; 류방란·김성식, 2006; 김기현, 2004; 방하남·김기현, 2002; 김영화·김병관, 1999). 이것은 교육 팽창으로 상급 학교 진학이 갖는 희소가치가 줄어들면, 교육 기관의 내적 분화를 통하여 교육기회가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가정 배경의 영향력은 2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점차 증가하여 왔다(김기현·방하남, 2003). 또한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본가계급과 중간 상층 계급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 부모가 지닌 문화 자본의 수준도 높았다(장미혜, 2002).

대학 진학에서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요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대학 입학에서 여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대학교육 기회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러한 현상은 여학생들이 하급대학인 2년제 대학에 많이 진학한 결과라는 것이다(김영화, 1991; 김기현·방하남, 2005).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크다(김미란, 2004). 계층이나 가정배경과 마찬가지로 교육 기회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도 대학 진학 여부에서 어떤 대학으로 진학하느냐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교육기회의 차등화가 고등교육의 질적인 분화를 통하여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 기회 자체보다는 어떤 유형의 교육 기회를 획득하는가 하는 질적 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 자체의 중요성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이다. 그 대신에 점점 4년제 대학, 그 중에서도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학생선발이 수학 능력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능력 지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개인의 성취에 따라 사회 이동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질적으로 분화된 교육 체제를 통하여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여전히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질적 분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는 지역적 분화이다(고형일·이두휴, 2003).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대학으로의 선호 현상이다. 세간에서 “서울 지역의 대학이 서울대”라고 지칭되는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에 따른 대학의 질적 차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도 편입학 등의 기회를 통하여 서울 지역의 대학으로 이동하게 만든다(오영재, 2005). 이러한 현상은 지방 대학의 공동화 문제를 제기할 만큼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학생 배경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역적 분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기능도 중요한 쟁점이다.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대해서 학교가 기여하는 부분은 가정 배경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Coleman et al., 1966; Jencks et al., 1972). 비록 영향력이 작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육은 의도를 갖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 정책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불평등을 확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또 어떤 학교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교육은 학생들의 배경과는 무관하게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통한 교육 불평등의 심화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진학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그동안 교육기회 획득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획득에서 학교 교육은 가정 배경의 영향을 매개할 뿐 독립적인 효과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계열화(tracking)에 대한 연구들은 학교 교육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수준의 차이가 이후 성취 수준과 진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Alexander & McDill, 1976, Alexander et al., 1978). 우리나라에서도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서 졸업 이후 획득하게 되는 고등교육 기회가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이런 계열의 영향은 대부분 이전 성취 수준과 가정 배경의 효과를 매개한다는 것이다(류한구, 1990; Alexander & Cook, 1982). 이는 학교 교육보다는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이 교육기회 획득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동이 학교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동안 교육 기회 획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되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학생의 성취 수준이 대학 진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교육 기회 배분이 전적으로 학생의 성적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능력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계층과 지역에 따라서 교육기회의 획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교육 기회를 계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차등적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교육 기회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자료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대학 진학에 대한 배경 요인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들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김기현, 2004; 김기현·방하남, 2005). 최근에는 몇몇 연구들이 객관적으로 측정된 학업 성취도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정도이다(김경근·변수용, 2006; 류방란·김성식, 2006). 교육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요인들이 학업성취와 어떤 관련을 맺으면서 대학 진학과정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학들의 분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 유형을 서울지역 4년제, 4년제, 2년제의 세 범주로 나누었고, 세 가지 유형의 대학에 대한 진학 가능성이 가정 배경, 성별, 지역 등의 배경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교과 흥미와 같은 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학교 변인이 교육 기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

다. 이것은 학생과 학교에 대한 변화가 대학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학 기회의 결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가정 배경과 학교 경험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학생 성취 수준의 통제는 학생 배경 요인과 학교 요인이 대학 진학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 성취 수준을 매개하는 부분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자료 및 분석 방법

### 1. 데이터 및 표본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집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의 1차, 2차, 3차년도 자료이다. 이 패널 자료는 2004년 중,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교육 경험과 직업 세계로의 이행 과정을 매년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표본 가운데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2,00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표본의 학생들은 2차년도 자료 조사 시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였다. 2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아직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도 존재한다.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도 존재하며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2차년도 조사 시점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3차년도 조사 시점에 새로운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학 결과는 3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2차년도 진학 결과를 사용하였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학생은 총 1,712명이었으며, 이들 학생 가운데 1,611명은 대학에 진학하였고, 101명은 아직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진학자에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미진학자 집단은 여러 집단이 혼재되어 있다. 상당수가 이후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거나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김경근·변수용, 2007). 이들 학생들의 가정 배경 수준은 전문계 대학 진학자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미진학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서 결측 문항이 있어 분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총 1,36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 변인의 구성

### 1) 종속 변인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종속 변인은 표본 학생들의 대학 진학 유형이다. 대학 진학 유형은 대학의 질적 분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서울 지역 이외의 4년제 대학(이하 기타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으로 구분하였다.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은 좀 더 좋은 대학의 의미를 갖지만 현실적인 의미에서만 구분될 뿐 대학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는 분석적 개념은 아니다.

실제 분석에서 사용되는 종속 변인은 각 대학 유형별 진학 확률의 비(odds ratio)이다. 분석 모형에서는 이를 선형적인 분포로 만들기 위하여 자연 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종속 변인의 실제적인 의미는 어떤 한 학생이 한 유형의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유형의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된다. 예컨대, 남학생이면서, 도시지역에 살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1-단위 상위에 있는 학생이 2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에 비추어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학 진학 유형이 세 가지 범주로 되어 있으므로, 진학 확률의 비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과 기타 4년제 대학, 서울지역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기타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등 모두 세 가지가 된다.

### 2) 독립변인

대학 진학 기회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볼 독립 변인은 크게 학생 배경과 지역, 학업 성취 수준, 학생 심리적 특성 및 학교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학생 배경과 지역은 대학 진학 기회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 배경적 요인들이다. 학업 성취 수준은 동일한 성취 수준인 학생들에게서도 배경에 따른 진학 가능성의 차이가 나타나기를 검토하기 위해서 포함되었다. 성취 수준을 통제된 이후에도 학생 배경과 지역에 따른 진학 기회의 차이가 나타나기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 진학에서 배경적 요인이외에 학생이나 학교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학생 심리적 특성과 학교 변인이 투입되었다.

먼저 학생 배경 변인에는 성별과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SES)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학생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SES)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을 통합한 변인이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부모의 최종학력을 교육 연수로 변환한 후 평균하였다<sup>1)</sup>. 가구의 소득 수준은 남성보호자의 월수입과 여성보호자의 월수입을 합한 후 자

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사회 경제적 배경(SES)은 두 변인을 각각 z-점수로 표준화하여 평균한 값이다.

대학 진학에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배경 요인인 지역은 도시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지역 변인은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읍면 지역을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인으로 변환하였다. 분석 모형에서 사회 경제적 배경(SES)이 함께 투입되므로, 지역 변인은 학생들의 가정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을 제외한 지역 수준의 교육 문화적 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성취 수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수능시험의 본래 취지상 세 과목의 종합 점수를 산출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학생을 엄밀하게 변별하는 데 있지 않으므로 세 과목의 평균 점수를 학생의 전반적인 성취 수준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교 수준에서 변화 가능한 특성으로 학생의 과외 시간, 교과 흥미도, 그리고 학교 만족도 변인을 사용하였다. 과외 시간과 교과 흥미도는 개인 수준의 변인이며 학교 만족도는 학교 수준의 변인이다. 학생의 과외 시간은 가정 배경 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나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습량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추가적인 학습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과 흥미도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 정도를 평균한 값이다.<sup>2)</sup> 교과 흥미도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학생의 심리적 특성이다. 이 변인은 교과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것과 대학 진학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학교의 만족 수준은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학교 생활 및 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를 묻는 5개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학교별로 산출한 값이다.<sup>3)</sup>

이 논문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값들은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 3. 분석 모형

이 논문에서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학생 배경, 성취, 심리적 특성, 학교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종속 변인이 연속 변인이

1) 무학은 0, 초등학교 졸업은 6, 중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2-3년제 대학 졸업은 14.5, 4년제 대학 졸업은 16, 석사 학위는 18, 박사 학위는 21의 값을 부여하였다.

2) 이 변인에 사용된 문항은 BYS11001, BYS11003, BYS11005이다.

3) 이 변인에 사용된 문항은 BYS02001에서 BYS02005의 문항으로서 "귀하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수업시간이 재미있고 즐겁다", "학생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은 마음이다(역코딩)", "공부할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lt;표 1&gt; 각 변인의 기술 통계

변인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고
학생수준						
대학진학1	1369	0.18	0.38	0	1	1=서울지역 4년제
대학진학2	1369	0.61	0.48	0	1	1=기타 4년제
대학진학3	1369	0.21	0.41	0	1	1=2년제 대학
성취 수준	1369	0.05	1.00	-3.45	2.57	
여학생	1369	0.47	0.50	0	1	1=여학생
SES	1369	0.03	0.83	-5.15	3.00	
교과흥미도	1369	3.19	0.70	1.00	5.00	
과외시간	1369	1.64	1.19	0.00	4.04	자연로그값
학교수준						
읍면지역	100	0.19	0.39	0	1	1=읍면지역
학교만족수준	100	3.13	0.25	2.60	3.99	

아닌 다항 변인이고, 데이터 수집이 학교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된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을 적용하였다. 서울지역 4년제, 기타 4년제, 2년제 대학을 구분한 범주형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학생들의 대학 진학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수립하였다.

#### 1-수준 모형

$$Y_{mij} = 1 \quad \text{if } R_{ij} = m \quad Y_{mij} = 0 \quad \text{if otherwise.}$$

$$E(Y_{mij} | \phi_{mij}) = \phi_{mij} \quad \text{Var}(Y_{mij} | \phi_{mij}) = \phi_{mij} \cdot (1 - \phi_{mij})$$

$$\eta_{mij} = \log\left(\frac{\phi_{mij}}{\phi_{(Mj)}}\right) = \log\left(\frac{\text{Prob}(R_{ij} = m)}{\text{Prob}(R_{ij} = M)}\right).$$

$$\eta_{mij} = \beta_{0j(m)} + \sum_{q=1}^{Q_m} \beta_{qj(m)} (X_{qij} - \bar{X}_{q..})$$

여기에서 학생들의 진학 유형( $R_{ij}$ )은 서울지역 4년제(=1), 기타 4년제(=2), 2년제(=3)의 3개의 범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마지막 범주인 2년제 대학,  $R_{ij}=M(=3)$ 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ta_{1ij} = \beta_{0j(1)} + \sum_{q=1}^{Q_1} \beta_{qj(1)} (X_{qij} - \bar{X}_{q..})$$

$$\eta_{2ij} = \beta_{0j(2)} + \sum_{q=1}^{Q_2} \beta_{qj(2)} (X_{qij} - \bar{X}_{q..})$$

$Y_{mij}$  = 진학 유형(m: 1=서울지역 4년제, 2= 기타 4년제, 3=2년제)

$\phi_{mij}$  = j학교 i학생이 m 유형 대학에 진학할 확률

$\eta_{mij}$  = m 유형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의 log-odds 값

$X_{qij}$  = 학생 수준의 가정 배경 및 특성 변인과 학교 경험 변인  
(학생 수준 독립변인은 전체 평균값을 중심으로 조정함)

## 2-수준 모형

$$\beta_{0j(m)} = \gamma_{00(m)} + \sum_{s=1}^{S_q} \gamma_{0s(m)} (W_{s.j} - \bar{W}_{s..}) + u_{0j(m)}$$

$$\beta_{qj(m)} = \gamma_{q0(m)}$$

$W_{sj}$  = 학교 수준의 독립 변인

(학교 만족도 수준 변인은 전체 평균값을 중심으로 조정함)

위에서 제시한 모형은 진학 경로가 j 범주나 J 범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건 아래에서, j 범주로 일어날 확률의 비(log odds)를 추정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기타 4년제 대학을 기준 범주로 하여 서울지역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확률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 범주를 기준 범주로 하여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과 기타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실행하였다. 즉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진학/기타 4년제 대학 진학,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진학/2년제 대학 진학, 기타 4년제 대학 진학/2년제 대학 진학 등 세 가지 유형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 III. 분석 결과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단계별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I은 기초 모형으로 이 논문의 주된 관심 사항인 학생의 성별 및 사회 경제적 배경,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모형 II는 배경 변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학생들의 진학 경향에서 학교 만족도 수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모형 III에서는 학생 특성 변인으로 교과 흥미도와 가정의 교육적 투자로서 과외 시간 변인이 투입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IV에서는 설정된 독립변인들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대학 진학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모형 IV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 1.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진학과 기타 4년제 대학 진학 비교

<표 1>의 기술통계에서 보면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 비율은 78.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서울 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7.8%이며, 기타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60.8%이다. 이 절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서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진학 경향에는 학생들의 배경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기타 4년제 대학이 아닌 서울 지역의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을 분석한 것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학생의 성별과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대학 진학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서 기타 4년제 대학 대비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1.6배 정도(=exp(0.496)) 높았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달리, 여학생들이 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진학 결과의 차이도 예상과 같이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기타 4년제 대학보다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SES 수준이 1-단위 높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기타 4년제 대학에 대비한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이 1.7배(=exp(0.506)) 정도 높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성취 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이다. 모형 IV에서 보면 비록 영향력의 크기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sup>4)</sup>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위권 대학에 상위 계층 학생들이 집중되는 현상

4) 모형 III에서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SESES)의 계수가 0.268로 나타나서 모형 I에서보다 4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SESES)의 영향력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경유하여 47% 정도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으로는 53%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기타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과의 비교)

변인	모형 I 계수(s.e.)	모형 II 계수(s.e.)	모형 III 계수(s.e.)	모형 IV 계수(s.e.)
절편	-1.313(0.148) ***	2.098(1.663)	1.494(1.634)	-0.770(1.821)
<b>학생수준</b>				
여학생	0.523(0.204) *	0.478(0.205) *	0.432(0.204) *	0.416(0.222) ~
SES	0.506(0.112) ***	0.488(0.112) ***	0.422(0.114) ***	0.268(0.123) *
<b>과외시간</b>			0.135(0.079) ~	0.175(0.090) ~
교과흥미			0.376(0.122) **	-0.166(0.141)
성취수준				1.362(0.129) ***
<b>학교수준</b>				
읍면지역	-0.496(0.381)	-0.467(0.397)	-0.342(0.375)	0.391(0.425)
학교만족		1.098(0.533) *	0.929(0.523) ~	0.402(0.581)
<b>무선효과</b>				
u <sub>00</sub>	1.084 ***	1.059 ***	0.983 ***	1.204 ***

~ < .10 \* < .05 \*\* < .01 \*\*\* < .001

이 전적으로 높은 성취 수준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 진학에서 입시 정보의 획득이나 교육적 지원 등의 차이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진학 경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서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이 다소 낮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학생 수준의 사회 경제적 배경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읍면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과 경제 수준의 차이를 제거하면 읍면 지역의 불리함은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해서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읍면 지역의 불리함은 가정 배경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는 것이며, 순수한 지역적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형 IV에서 성취 수준을 통제할 경우, 읍면 지역 학생들이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 지역 대학들이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 더 부여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II에서 투입된 학교 만족도 변인은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가정 배경을 통제하더라도, 학교 만족 수준이 1-단위 높은 학교에서는 평균 수준의 학교보다 학생들이 기타 4년제 대학에 대비하여 서울 지역 4년제 진학 가능성이 3.0배 정도(=exp(1.098)) 더 높았다. 학교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어떤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형 IV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학교의 영향력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제하면 크게 감소하여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진학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높임으로써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과흥미도와 과외 시간도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모형Ⅲ).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흥미도가 높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1.5배( $=\exp(0.376)$ ) 정도 높았다. 과외 시간에서도 1-단위 높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1.1배( $=\exp(0.135)$ ) 정도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과외 시간의 영향력은 완화된 기준( $\alpha < .10$ )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수준이었다. 교과흥미도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제하면,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나타냈다(모형Ⅳ). 학교 만족 수준과 마찬가지로 교과흥미도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임으로써 대학 진학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진학과 2년제 대학 진학의 비교

서울 지역의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2년제 대학으로 진학과 비교하는 것이다.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년제 대학 진학에 대비한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진학의 결과에서도 학생의 성별과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의 만족 수준, 그리고 교과흥미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방향이나 크기는 변인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앞의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지역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I에서 성별에 따른 대학 진학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서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들의 진학 가능성에 비해서 0.6배 정도( $=\exp(-0.435)$ )에 그쳤다. 2년제 대학 진학에 대비하여 살펴볼 경우 여학생들은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앞의 결과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여학생들의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은 기타 4년제 대학에 대비해 보면 남학생들보다 유리하지만, 2년제 대학에 비추어 보면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학생들은 여전히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Ⅳ에서 성취 수준을 통제할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성취 수준이 월등하여 서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할 정도가 아니라면 4년제 대학 진학에서 남학생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진학 결과의 차이는 앞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2년제 대학보다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SES 수준이 1-단위 높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2년제 대학에 대비하여 서

<표 3>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2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과의 비교)

변인	모형 I 계수(s.e.)	모형 II 계수(s.e.)	모형 III 계수(s.e.)	모형 IV 계수(s.e.)
절편	-0.123(0.125) *	3.152(1.424) *	1.596(1.443)	-0.896(1.523)
<b>학생수준</b>				
여학생	-0.435(0.206) *	-0.492(0.208) *	-0.596(0.212) **	-0.776(0.228) **
SES	1.017(0.129) ***	0.997(0.129) ***	0.871(0.134) ***	0.725(0.147) ***
<b>과외시간</b>			0.299(0.090) **	0.334(0.103) **
교과흥미			0.927(0.144) ***	0.080(0.169)
성취수준				2.156(0.156) ***
<b>학교수준</b>				
읍면지역	-0.689(0.324) *	-0.673(0.321) *	-0.387(0.327)	0.835(0.355) *
학교만족		1.053(0.457) *	0.563(0.463)	-0.088(0.486)
<b>무선효과</b>				
u <sub>00</sub>	0.303 **	0.281 **	0.244 ***	0.057 ***

~ < .10 \* < .05 \*\* < .01 \*\*\* < .001

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2.8배(=exp(1.017))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성취 수준을 통제하더라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년제 대학과 대비하여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의 진학 가능성을 분석할 경우,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2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읍면 지역 학생들은 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읍면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의 하위 층을 이루고 있는 2년제 대학으로 많은 수가 진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IV에서 성취 수준을 통제할 경우, 읍면지역 학생들은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취 수준이 동일한 학생끼리 비교하면, 읍면 지역의 학생이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덜 진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서울 지역 대학들이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이 갖고 있는 취약한 교육 여건과 낮은 성취 수준을 상당히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 만족 수준은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모형 II). 학생들의 만족 수준이 1-단위 높은 학교에서는 평균 수준의 학교에서보다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이 2.9배 정도(=exp(1.053)) 더 높았다. 이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에 따라서 2년제 대학보다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학교의 영향력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제 하면 크게 감소하여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 지역 4년제 대

학 진학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매개하여 작용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교과흥미도와 과외 시간 역시 2년제 대학보다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모형Ⅲ).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흥미도가 높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2.5배( $=\exp(0.927)$ ) 정도 높았고, 과외 시간에서도 1-단위 높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1.3배( $=\exp(0.299)$ ) 정도 더 높았다. 모형Ⅳ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제하면 교과흥미도는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만 과외의 효과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과흥미도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하여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과외의 효과는 그와는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기타 4년제 대학 진학과 2년제 대학 진학의 비교

학생들의 진학 경향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타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을 비교하는 것이다. 2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타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학생의 성별과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교과흥미도와 과외 시간이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앞의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분석에서는 의미 있게 나타났던 학교의 만족 수준과 지역 변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I 을 보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서 2년제 대학이 아닌 기타 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가능성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0.4배 수준( $=\exp(-0.958)$ )에 그치고 있다. 앞의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진학 경향과 종합하여 볼 때 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이 낮으며 2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대신에 4년제 대학만 한정하고 보면, 서울지역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일한 성취 수준에서 분석 할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여학생들의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학생들의 높은 성취 수준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서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할 정도로 성취 수준이 높지 않으면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진학 결과의 차이는 앞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2년제 대학보다는 기타 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SES 수준이 1-단위 높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2년제 대학이 아닌 기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1.7배( $=\exp(0.511)$ )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의 두 분석에서

<표 4> 기타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2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과의 비교)

변인	모형 I 계수(s.e.)	모형 II 계수(s.e.)	모형 III 계수(s.e.)	모형 IV 계수(s.e.)
절편	1.190(0.133) ***	1.053(1.548)	0.102(1.602)	-0.128(1.620)
<b>학생수준</b>				
여학생	-0.958(0.186) ***	-0.970(0.188) ***	-1.028(0.193) ***	-1.193(0.195) ***
SES	0.511(0.098) ***	0.509(0.098) ***	0.449(0.102) ***	0.457(0.106) ***
<b>과외시간</b>				
교과흥미			0.163(0.068) *	0.160(0.070) *
성취수준			0.550(0.112) ***	0.247(0.122) *
<b>학교수준</b>				
읍면지역	-0.193(0.302)	-0.206(0.305)	-0.045(0.317)	0.443(0.323)
학교만족		-0.045(0.493)	-0.365(0.511)	-0.490(0.516)
<b>무선효과</b>				
u <sub>00</sub>	0.832 ***	0.853 ***	0.908 ***	0.877 ***

~ < .10 \* < .05 \*\* < .01 \*\*\* < .001

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제하더라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년제 대학과 기타 4년제 대학의 진학을 비교할 경우, 읍면 지역 학생들의 기타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제한 모형 IV에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기타 4년제 대학 진학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읍면 지역의 효과가 서울 지역 대학과 기타 대학의 구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앞의 분석과는 다르게, 학교 만족 수준은 2년제 대학과 기타 4년제 대학의 비교에서는 학생들의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모형 II). 학교의 만족 수준은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에서보다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있어서 학교의 효과는 상위권 대학에서 좀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생들의 교과흥미도와 과외 시간은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타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III). 교과흥미도가 높은 학생들은 평균인 학생들보다 1.7배(=exp(0.550)) 정도 높았고 과외 시간에서도 1-단위 높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1.2배=exp(0.163) 정도 더 높았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제하면, 교과흥미도는 그 영향력이 사라진다(모형 IV). 앞의 결과와 종합하여 보면, 교과흥미도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통하여 2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을, 기타 4년제 보다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 가능

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과외도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과외의 효과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통제하지 못하는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논문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학생 배경, 지역, 심리적 특성, 그리고 학교 특성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다. 분석 결과에서도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이 2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며, 그 중에서도 서울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이 기본적으로 학생 성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중요한 것은 성취 수준을 통제된 이후에도 학생 배경 요인들의 영향력이 지속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독특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가정 배경, 성취 수준 등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도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이 여전히 많다. 그렇지만 반대의 현상도 나타난다. 예컨대, 서울 지역 4년제 대학과 같은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에서는 여학생이 좀 더 진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기타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과 비교했을 때만 유효할 뿐이다. 이런 결과는 여학생들의 경우 서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할 정도로 월등한 성취 수준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전히 대학 진학 기회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대학 진학 기회에서 좀 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과 같은 가정 배경의 영향력은 대학 진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분석 결과에서도 가정 배경이 좋은 학생일수록 좀 더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 가능성이 높았다. 가정 배경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2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에,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서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배경의 영향은 많은 부분 성취 수준을 매개하여 이루어지지만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상위권 대학에 상위 계층의 학생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좋은 성적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이 일반적인 믿음과 같이 완전하게 성취 중심적이지 않으며 배



경적 요인이 많은 부분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지역 변인은 일반적인 예상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서 불리함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입학에서 읍면 지역 학생들은 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진학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읍면 지역 학생들의 낮은 대학 진학률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낮은 성취 수준 때문이며, 동등한 성취 수준일 경우에는 지역적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불리함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학 전형에서 시골 지역 학생이라고 해서 자신의 성취 수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서울 지역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배려 차원의 정책에 의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 배경의 또 다른 측면이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학습량이라고 할 수 있는 과외 정도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영향력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다른 배경적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과외 정도는 2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에, 4년제 대학에서는 지방 대학보다는 서울 지역 대학으로의 진학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이러한 영향력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의 효과는 성취 수준을 높임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의 관심과 기대, 그리고 대학 입학 정보 수집 등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SESES)이 포착하지 못하는 가정 배경의 또 다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관련된 변인을 포함하는 추가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는 대학 진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중요 교과에 대한 흥미는 다른 배경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해준다. 이러한 영향력도 대부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매개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교과 흥미는 서울 지역 대학과 지방 대학의 구분에서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과에 대한 흥미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상위권 대학에서보다는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의 진학에서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것은 최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을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학교가 대학 진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각 분석 모형에서 학교의 변량을 보여주는 무선효과( $u_{00}$ )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모형에서 투입된 변인들 이외에 학교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만족 수준은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 대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에 대비한 분석에

서는 분명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였다. 이는 만족도와 같은 학교의 질적 수준이 상위권 대학의 진학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컨대,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학생 자신의 성취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반드시 성취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진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성별이나 가정배경, 지역과 같은 배경 요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성취 수준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배경 요인의 영향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며 이를 보완하는 정책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논의되는 입학사정관제도와 같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업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 진학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이 대학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학생들의 진로 지도나 진학 지원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나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예컨대, 여학생들은 2년제 대학과 기타 4년제 대학 사이에서 불리함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한 교과 흥미도는 2년제 대학과 기타 4년제 대학 진학에서 중요하며, 학교 만족도는 서울 지역 대학 진학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최상의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진학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학 진학에서 학생 배경에 의한 차이가 학교 교육에 의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만족 수준이 학생들의 진학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력의 대부분은 학업 성취를 매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학교 변인으로서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정도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효과를 보다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화-풍토적 변인과 학교 조직 관련 변인들은 제외되었다. 교육 기회에 대한 학교 교육의 기능과 효과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 포함된 변인들 이외의 다른 학교 요인들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영혜, 김미숙, 이 영, 남기곤, 김동춘(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김광역, 김대일, 서이중, 이창용(2004).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변수용(2007).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김기현(2004).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8(5), 109-142.
- 김기현, 방하남(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 간 변화와 학력 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김기현, 방하남(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사회학, 39(5), 119-151.
- 김미란(2004). 교육기회의 메리트크라시 구조: 대학유형과 서열별 진학기회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0, 1-21.
- 김영화(1991).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과 여성의 고등교육기회 구조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2), 75-92.
- 김영화, 김병관(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1), 155-172.
- 방하남, 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류한구(1990). 고등교육기회 획득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류방란, 김성식(2006). 교육 양극화의 실상: 가정의 교육 지원과 학교 경험의 차이. 교육양극화의 진단과 대책. 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육사회학회 공동세미나 발표논문.
- 류방란, 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경험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두휴·고형일(2003). 대학서열체계의 공고화와 지역 간 불균등 발전. 교육사회학연구, 13(1), 191-214.
- 장미혜(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 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하봉운(2005).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3(3), 167-193.
- Alexander, K. L. & E. L. McDill(1976). Selection and allocation within schools: some cause and consequences of curriculum placement." *Americna Sociological Review* 41. 963-980.
- Alexander, K. L., M. A. Cook & E. L. McDill(1978) Curriculum tracking and educational stratification: some further evidence. *Americna Sociological Review* 43. 47-66.
- Alexander, K. L. & M. A. Cook(1982). Curricula and coursework: a surprise ending to a familiar story. *Americna Sociological Review* 47. 626-640.
- Boudon, R.(1974).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Changing Prospects in Western Society*. New York: Wiley.
- Breen, R. & J. O. Jonsson(2000). Analyzing educational careers: a multinomial transition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 754-772.
- Coleman J. S., E. Q. Campbell, C. J. Hobson, & J. M. McPartland(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Jencks C., M. Smith, H. Acland, M. J. Bane, D. Cohen, H. Gintis, B. Heyns, & S. Michelson(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Mare, R(1980). Social background and school continuation decision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75. 295-305.
- Lucas, S. R.(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642-90.
- Raudenbush, S. W. & A. S. Bryk(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s.

\* 논문접수 2008년 5월 13일 / 1차 심사 2008년 5월 30일 / 2차 심사 2008년 6월 10일 / 게재승인 2008년 6월 18일

\* 김성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학교효과, 교육정책평가, 교육격차, 사회계층이동 등이다.

\* e-mail: sskim@kedi.re.kr

Abstract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tudent Backgrounds on Opportunity of Tertiary Education in South Korea

Kim, Sung-si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tent to which educational opportunity is depend on student's background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whether social backgrounds of student are still influential on probability of his/her access to higher education after his/her ability controlled. And, it is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disparity influenced by student backgrounds has been concealed by the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tertiary education. Given the concerns, this study analyzed the educational paths of 1,369 graduates of 100 general high schools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data sets. The result confirms that such student background as parents' socio-economic status(SES) and student's gender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bability of access to upper education, and also partly supports that the quality of high school could be effective on educational opportunity. However, its effect have disappeared when student achievement variable was input. The effect of school on entrance to higher education need to be analyzed further with more school related variables.

Key words: entrance into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stratification, equity, achievement

---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er